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말



 **중부일보**

신연경 기자



‘한번 뵙고 싶은 선생님이 계셔서 검색하다가 우연히 기자님의 기사를 보고 너무 반갑고 기뻐합니다. 좋은 기사를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어린 시절 선생님을 추억하는 졸업생의 인사였다.

해당 기사는 2년 전 쓴 한 고등학교의 졸업생들과 선생님에 관한 내용이었다. 지역의 소식을 담은, 늘 쓰는 일상적이면서도 따뜻한 기사가 꽤 시간이 지나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반가움과 그리움을 더했다는 사실이 내겐 작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독자의 인사는 내가 쓰는 기사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이처럼 취재 현장에서 만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말이 있다.

‘따스한 햇살’처럼 힘이 되는 말

문화부에서 신간 소개를 쓸 땐, ‘따뜻하게 읽어주시고 기사 잘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운영되는 작은 출판사에는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등의 말이 보람있었다.

누구나 응당 발로 뛰는 기자이겠지만,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자의 멋진 모습을 보게 돼 영광이었습니다.’라는 인사는 쉬는 날도 반납한 체 몸살까지 앓고 있던 병아리 기자에게 큰 힘이자 칭찬으로 느껴졌다.

사회부·경제부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요목조목 파헤치며 쓴 기사에 독자가 남긴 ‘위 기사의 내용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막막하고 갑갑한 상황입니다.’라는 댓글은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을 어

☞ 선생님 관련 기사 문의드립니다 ☞

보낸사람 shine<shine@joongboo.com> 주소추가 수신차단
받는사람 주소추가

책속 > 위 > 아래 >

26.04.29 (今) 06:39 ☆

기차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96년도에 수원여고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한 번 뵈고 싶은 선생님이 계셔서 검색하다 우연히 [redacted] 선생님이 관한 기차님의 기사를 보고 너무 반갑고 기쁠습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idxno=363678785>

한 번 꼭 보고 싶기도 하고 스승에 날 곳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꼭지 언하드님 방법이 있을지해서 여쭙습니다. 일단 하시기도 바쁘실텐데 죄송하고
너무 좋은 기사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을 보름가량 앞둔 4월 말 한 독자로부터 2024년에 쓴 기사 내용을 보고 반가웠다는 문의 메일을 받았다.

떻게 하면 쉬우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짚어 줄 수 있을까 고민이 깊었던 기사 출고 후 ‘기자님의 전문성과 세심한 필력 덕분에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게 전달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땐 여러 차례 고민하고 퇴고했던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은 것 같았다.

그 시간 속에 지금도 가끔 지치는 날
이면 일기장 꺼내보듯 찾는 말이 있다.
 2019년 11월27일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남
긴 ‘따스한 햇살’이 그 주인공이다.

일주일 된 수습기자로서 출입하던 경찰서에서 첫인사를 나눈 A과장이 내게 해준 말이였다. 당시 나는 2년여의 경력을 뒤로 하고 지역에서 사회부 수습기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지 딱 일주일이 되던 시기였다. 오전 7시까지 출입하는 경찰서에 가서 밤새 있었던 사건, 사고를 알아내야 했고, 지구대와 파출소를 돌며 무전기로 들은 이야기나 우연히 접한 사연까지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수 선배에게 빠진

없이 전했던 보고 내용은 취재해야 할 산
더미 같은 숙제로 돌아와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건가’ 하는 고민의 연속이었다.

수습일지에 오늘 만난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써야 하기에 혹여 잘 모르는 게 드러날까 봐 이것저것 공부해서 질문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A과장은 대화가 끝나갈 때쯤 ‘이야기를 나눠보니 신 기자님은 따스한 햇살 같은 사람이네요. 좋은 기자가 되길 바랄게요’라고 응원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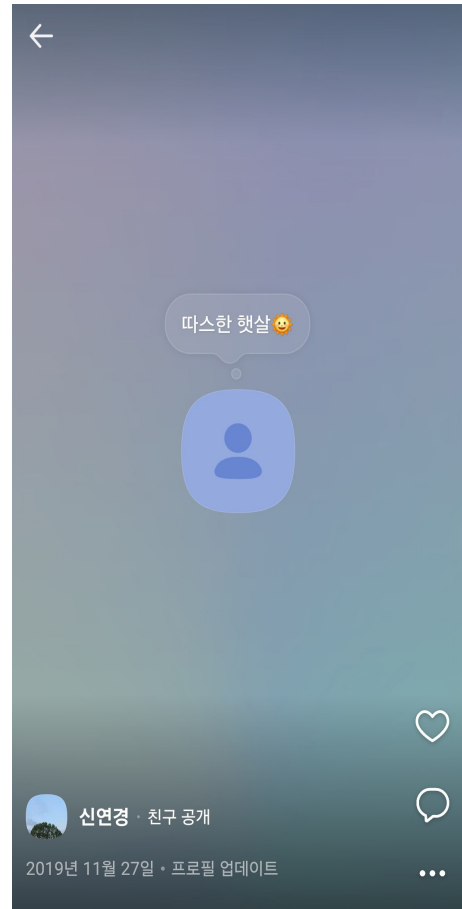
‘아무리 바빠도 밥은 잘 챙겨먹고 다녀야 한다’며 식권을 건네주고, 같이 아침밥을 먹었던 B과장의 마음도 내겐 겨울 날씨처럼 추웠던 수습시절을 건디게 해준 말이었다.

어느덧 내년이면 스스로 단기 목표로 삼았던 기자 생활 10년을 채우게 된다. 취재가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기사가 쉽게 써지지 않을 때,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고 싶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건 결국 주변 사람들이 내게 건넨 자양분 같은 한마디 덕분이다.

2026 기자의 세상보기



수습시절이던 2019년 11월27일 마와리 돌면서 '따스한 햇살'이라는 이야기에 위로를 느끼고 SNS 남겨둔 당시의 느낌.



수습기자 생활 일주일째던 2019년 11월27일 '따스한 햇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기록해놓은 뒤 지금도 가끔씩 들여다 보곤 한다.

나의 명예 취재원, 소중한 친구

‘시청에서 안전안내문자 왔어. 불났다는데...’

2020년 12월1일 오후 5시 8분. 퇴근길에 올라 버스정류장에 엉덩이를 붙인 순간 동네 친구로부터 군포 화재 소식이 담

긴 문자 한통을 받았다. 단순해보였던 이 한마디는 내가 기자로서 딜레마와 성장통을 마주하게 한 현장으로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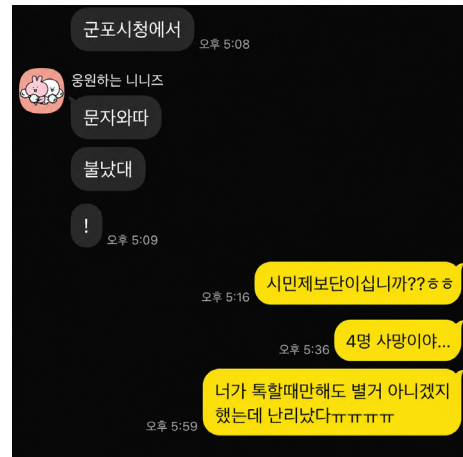
당시 사회부 소속이었던 나는 만기 출소 후 안산으로 복귀 예정인 조두순을 둘러싼 지역사회 불안감과 안전 대비책에 대해 취재하고 이제 막 퇴근하던 때였다.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해 친구에게 ‘시민제보단이야?’ 라고 답장한 채 혹시 몰라 선배한테 내용을 공유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날도 꽤 춥고 피곤했던 터라 인명피해가 없길, 큰불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도 자리했다. 아침에 발제한 아이템이 ‘킬’ 당해서 한껏 기가 꺾인 채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자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니고 ‘이만하면 오늘 하루도 열심히 했다’ 싶은 날이기도 했다.

그런데 선배, 동기들과 각 출입처에 확인해 보니 이날 4시 37분께 발생한 군포 아파트 화재로 사망자와 사상자 피해 상황이 확인됐고, 이 소식을 보고했던 나는 20분 사이 택시를 잡아타고 안산에서 군포까지 이동하면서 노트북을 꺼내 사고 기사를 썼다.

현장에 도착해 후배와 함께 경찰과 소방 브리핑을 시작으로 주민 목격담, 1차 현장 감식 취재를 마치고 오후 10시가 넘어 다른 후배와 교대한 채 퇴근했다. 문화부에서 사회부로 옮긴 지 3개월 차에 처음 나간 현장이었던 탓에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고, 순간순간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며 대응한 점에 대해 부장과 국장으로부터 “수고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 한마디



2020년 12월1일 퇴근길, 군포 아파트 화재 발생을 알게 된 친구와의 대화 내용.

는 큰 위안으로 남았다.

두 번째 퇴근길에 올라 친구에게 ‘너랑 연락할 때만 해도 별거 아니겠지 싶었는데 난리 났어...’ 라고 연락을 남기며, 고마운 마음도 전했다. 우리 동네도 아니고, 바로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었던 터라 친구가 유심히 보지 않았다면, 보고도 그냥 넘겼다면 그날의 나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뒤늦게 취재를 가게 됐거나 어쩌면 아예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은 현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만큼 친구에게 고마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물론 나의 명예 취재원인 친구의 제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회사도, 부서도 옮기고 다시 사회부에서 일하던 2024년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화재... 4명 사망 6명 부상

군포시 산본동 한 아파트에서 난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일 오후 4시 37분쯤 군포시 산본동 25층 높이 백두한양아파트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을 피하던 주민 2명은 아파트 옥상 계단함(계단 중간에 피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2명은 건물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옥상 계단함에서 1명, 아파트 내부에서 3명, 사다리차를 통해 2명 등 모두 6명을 구조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94명과 펌프, 구조 등 장비 4대를 투입해 오후 5시 11분에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인명, 재산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군포시 산본동 백두한양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군포시청은 "인근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연경 기자

2020년 12월1일 친구의 제보를 계기로 현장 취재를 하게 된 군포 아파트 화재 관련 기사. 경기신문

시민제보단인 친구의 제보로 회사도 부서도
또 한번 옮긴 2024년 당시 후배 기자와 취재
후 쓴 사건·사고 기사. 중부일보

시안서

안산서 나물 캐던 70대 하천에 미끄러져 실종사

안산 11월 13일 14시 11분 11월 13일 14시 11분 11월 13일 14시 11분



13일 안산시에서 발생한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하천에서 실종된 70대 노인.

안산의 한 하천에서 나물을 캐던 70대가 미끄러져 실종사했다.

13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2분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한 하천에 연사체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시신을 수습한 뒤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70대 A씨는 하천에서 나물을 캐다가 돌에 미끄러져 하천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인이 물에 빠진 뒤 곧바로 나오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연경 기자

11월의 어느 날. 한창 마감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던 때 '우리 회사 주변에 경찰들이 자꾸 오고 뭔가 수상해'라는 문자와 함께 한갓진 길가 옆 풀숲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거리뷰 사진이 차례로 도착했다.

나는 어느새 친구에게 사진이나 현장 상황을 공유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사건을 담당하는 후배와 취재한 끝에 사고임을 확인했고, 누군가의 마지막을 기록했다.

이 기회를 빌려 지나치지 않고 열정과

측으로 제보해준, 묵묵히 응원해주고 나를 성장하게 만든 나의 애독자인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돌아보면 사람은 거창한 일보다도, 누군가 무심히 건넨 한마디로 앞으로 걸어 나갈 힘을 얻는다. 나도 내가 쓴 글로 누군가에게 말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 무게감을 되새기며, 오늘도 사회를 한 바퀴 밝히려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다짐해본다. 🙏

중부일보 신연경 기자